

고린도후서1:1-11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외적 환난이 참으로 크고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나, 그를 더욱 못 견디게 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그의 복음이 왜곡되어 받아들여지고 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과 무시가 끊임없이 계속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1.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이다.(1)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라 이 사람(=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고, 22장 21절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26장 16-18절에서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낸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케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도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에 대한 증거로서 기록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15:8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라고 해명하면서 자신의사도권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을 기록합니다.

2.디모데는 내 형제이다.(1)

1절 중반에 보면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전4:17절에서는 디모데를 ‘아들’ 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벌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전1:1절에서는 그를 ‘형제’로 소개합니다. 이유는 그의 실추된 권위를 위해서 이고 틀어져 있는 고린도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권위를 세워 주기 위해서 아들뻘이 사람을 자기와 같은 급인 형제로 불러줍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권위를 높여주면 자신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의 권위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바울의 권위도 덩달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3.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1)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교회의 소유주는 어떤 경우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교회에서 거짓 사도들이 내가 어떤 유력한 아무개의 추천서가 있으니 내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야겠다. 또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베드로파다라고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분쟁이 있고 싸우게 되는 이유는 교회의 소유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충성할때 자신의 백성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교회의 소유주가 하나님뿐임을 망각하지 않을 때 일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되심을 망각하면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그때 부터 하나님과 동떨어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요15:10)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Joseph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